

조사 ‘에다가’의 통사·의미적 연구

유 경 화*

〈차례〉

- | | |
|---------------------------|--------------------------|
| 1. 들어가기 | 3. 접속조사 ‘에다가’의 용법 |
| 2.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용법 | 3.1. 접속조사 ‘에다가’의 통사적 특성 |
| 2.1.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통사적 특성 | 3.2. 접속조사 ‘에다가’의 의미 기능 |
| 2.2.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의미 기능 | 3.3. 접속조사 ‘에다가’와 ‘에’의 관계 |
| 2.3. 부사격조사 ‘에다가’와 ‘에’의 관계 | 4. 나오기 |

1. 들어가기

본고는 조사 ‘에다가’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어 구문구조에 있어서 한 성분이 다른 성분에 대해 갖는 문법적인 관계는 조사에 의하여 표시되므로 문법 연구에서 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한국어 조사 체계는 대체로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격조사,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보조사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격조사는 체언이나 용언의 명사형 뒤에 붙어서 그 말이 다른 말에 대해 가지는 격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보조사는 체언이나 부사, 활용어미 따위에 붙어서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다. 격조사 중에서 공동격 ‘와/과’는 선행 체언과 후행 체언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체언을 병렬시키는 것이 격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접속조사라 하여 구분하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기도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 ㄱ. 철수는 경희와 닮았다.
 ㄴ. 사과와 배가 맛있다.

(1ㄱ)의 ‘경희와’는 대칭형용사¹⁾ ‘닮다’의 필수적 부사어로서 생략될 수 없다. 반면에 (1ㄴ)의 ‘와’는 ‘사과’와 ‘배’를 하나의 명사구로 만들어 다시 서술어 ‘맛있다’와 결합하여 쓰인다. 즉 (1ㄱ)의 ‘와’는 ‘경희’에 붙어 ‘경희와’를 부사어로 만드는 부사격조사이고, (1ㄴ)의 ‘와’는 체언 ‘사과’와 ‘배’를 접속시켜 주는 접속조사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하나의 조사가 여러 가지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사 ‘에다가’도 ‘와’와 같이 두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다.

- (2) 그건 창고에다가 넣어 두어라.
 (3) 밥에다가 술에다가 실컷 먹었다.

(2)의 ‘에다가’는 ‘창고’와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 체언에 연결되어 쓰이는 부사격조사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3)의 ‘에다가’는 체언 ‘밥과 술’을 접속시켜 주는 접속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문웅(1982), 백낙천(1996), 이정화(1998) 등 논의에서 (2)와 (3)의 ‘에다가’가 같은 어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같은 어원인 ‘에다가’는 현대 한국어에서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른 문법 범주에 넣고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고는 위와 같이 부사격조사로서의 ‘에다가’와 접속조사로서의 ‘에다가’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 기능을 범주 별로 살펴해보고자 한다.

한편, 다음 예문에 쓰인 ‘에다가’와 ‘에’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이 같은 단어의 준말과 원형인지, 아니면 서로 별개의 단

1) 이억섭·채완(1999/2010:189)에서는 짝과 함께라야 성립되는 행위의 동사(및 형용사)들을 交互性 대칭동사(또는 대칭형용사)라 하였다. ‘만나다, 헤어지다, 싸우다, 사귀다 … 닮다’ 등은 이에 속한다.

어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4) ㄱ. 사과에다가 배에다가 많이 먹었다.

ㄴ. 사과에 배에 많이 먹었다.

(4)에서 보여주듯이 같은 환경에서 ‘에다가’와 ‘에’가 모두 출현될 수 있다. (4ㄴ)의 ‘에’는 본래 조사 ‘에’인지, 아니면 ‘에다가’가 줄어서 된 ‘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에다가’의 형태소 분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를 또 하나의 논의의 대상을 삼기로 한다.

또한 그 동안의 선행연구는 ‘에다가’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 기능을 자세히 제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에다가’의 문법 범주 설정 문제조차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²⁾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에다가’를 격조사로만 하나의 문법 범주로 설정되어 있는 실태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격조사와 접속조사 두 범주에서 ‘에다가’가 드러내는 통사적 특성과 의미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용법

2.1.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통사적 특성

그 동안 부사격조사의 명칭과 문법 범주에 대한 논의는 이견이 많았다. 허웅(1967)에서는 격을 체언과 용언과의 관계로 한정하면서 격의 설정과 분류에 있어 기능을 형태에 버금가게 중시하였다. 최현배(1937)에서는 부사격조사를 다시 그 의미에 따라 여섯 가지로 나

2) 이에 관련된 논의는 김영희(1975), 성광수(1979), 김진수(1987), 이정화(1998)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김영희(1975)에서는 의존형 ‘다가’가 선행명사구의 격 범주 등 문법관계와 무관하므로 문법기능의 표시어가 아니라 단지 의미부담어라고 밝혔고, 성광수(1979)에서는 ‘에다가’가 체언 나열의 구접속에만 사용되는 기형적인 ‘의사접속조사’라 보았고, 김진수(1987)에서는 ‘에’와 ‘에다가’를 같은 형태로 보았고, 이정화(1998)에서는 ‘에’가 체언 아래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부사격조사의 기능이 소멸하고 접속조사로 문법범주의 변이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에다가’의 범주의 설정 문제나 통사적 특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누고 있다. 이희승(1949)에서는 부사격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의미에 따라 격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부사격조사는 부사어(필수적 성분이 아닌)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허웅(1983)에서는 위치, 방편, 견줄자리로 최현배(1937)의 부사격에 해당하는 범주를 나누고, 이들이 서술어와 직접적인 걸림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부사격조사가 문장의 서술어와 직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서로 다르다. 실체는 다음 예문에서 쓰인 것처럼 부사격조사가 문장의 수의적 성분인 부사어를 구성하기도 하고 필수적 성분을 구성하기도 한다.

(5) 나는 철수와 집으로 갔다.

(5)에서 서술어 ‘가다’는 행동주역과 목표역을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부사어 ‘철수와’를 꼭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부사어 ‘집으로’는 꼭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5)의 부사어 ‘철수와’는 수의적이므로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반면에 (5)의 부사어 ‘집으로’는 필수적이므로 생략될 수 없다. 이처럼 부사어가 서술어에 따라 문장의 필수적 성분이 되기도 하고, 수의적 성분이 되기도 한다. 이원근(1996:52)에서는 수의적 성분이든 필수적 성분이든 부사격조사는 서술어와 그 의미에 따르는 의미격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먼저 서술어와의 관계에서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6) ㄱ. *학교에다가 학생이 많다.

ㄴ. *침대에다가 꽃이 놓였다.

ㄷ. 우리는 그 상처 위에다가 먹다 남은 소주를 부었다.

(7) ㄱ. *칭찬에다가 선물이 훌륭하다.

ㄴ. 커피에다가 설탕을 탔다.

ㄷ. 셋에다가 둘이 더 추가되었다.

ㄹ. *철수가 영희에다가 물을 주었다.³⁾

3) 익명의 심사자께서 제시하신 예문이다.

(6)에서 ‘에다가’와 결합하는 선행어 ‘학교’, ‘침대’, ‘상처 위’는 모두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구이다. (6ㄱ, ㄴ)에서 ‘에다가’와 결합하는 서술어는 각 형용사 ‘많다’, 자동사 ‘놓이다’이다. 통사적인 면에서 이 두 문장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6ㄷ)에서 ‘에다가’와 결합하는 서술어는 타동사 ‘붓다’이다. 이때 통사·의미적으로 살펴볼 때 문장의 성립은 모두 가능하다. 즉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선행어와 결합할 때 부사격조사 ‘에다가’는 서술어에 대해 반드시 타동사인 것을 요구한다.

(7)에서 ‘에다가’와 결합하는 선행어 ‘칭찬’, ‘커피’, ‘셋’, ‘영화’는 모두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7ㄱ)에서 ‘에다가’와 결합하는 서술어는 형용사 ‘훌륭하다’이다. 하지만 이때의 문장은 비문이다. 즉 ‘에다가’는 형용사인 서술어와 결합하지 않는다. (7ㄴ, ㄷ)에서 ‘에다가’와 결합하는 서술어는 각 타동사 ‘타다’, 자동사 ‘추가되다’이다. 두 문장은 모두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런 상황에서 쓰인 ‘에다가’는 서술어 제약은 형용사에만 해당한다. 한편 (7ㄷ)에서 ‘에다가’와 결합하는 서술어는 타동사 ‘주다’인데도 불구하고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에다가’와 결합하는 선행어가 유정명사 ‘영화’이기 때문이다. 즉 부사격조사 ‘에다가’는 유정명사인 선행어와 결합하는 데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6ㄷ)의 ‘붓다’는 행동주역과 대상역, 그리고 처소역을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문장에서 부사어 ‘상처 위에다가’는 생략될 수 없다. (7ㄴ, ㄷ)의 ‘타다’, ‘추가되다’도 행동주역, 이중 대상역을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문장에서 부사어 ‘커피에다가’, ‘셋에다가’는 생략될 수 없다. 즉 부사격조사 ‘에다가’와 결합한 부사어는 서술어와 직접관계를 맺으므로 생략될 수 없다.

이상에서 논의하였듯이 ‘에다가’는 처소인 선행어에 붙어 쓰일 때 문장의 서술어는 반드시 타동사이어야 하며, ‘처소’ 이외의 선행어에 붙어 쓰일 때 문장의 서술어는 타동사도 가능하고 자동사도 가능하다. 이는 조사 ‘에다가’의 형성과정에서 문법화가 일어나는 정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김영희(1975), 김문웅(1982), 이태영(1988), 백낙천(1996), 이남순(1996), 한용운(2003) 등이

있다. 이런 논의들에서 접속어미, 보조사, 보조동사 등으로 쓰인 ‘-다가’의 어원 문제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조사 ‘에다가’의 형성과정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일치한다. 즉 조사 ‘에다가’는 타동사 ‘다다(다그다)’와 그에 통합된 문법형태소가 문법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법화 정도의 강약에 따라 ‘에다가’의 쓰임도 달라진다. (6)처럼 처소 명사구를 선행어로 가진 ‘에다가’는 문법화 과정이 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7)처럼 처소 이외의 명사구를 선행어로 가진 ‘에다가’는 문법화 과정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법화 과정이 비교적 덜 일어나는 ‘에다가’는 선행어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심하다.

다음으로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통합 양상을 살펴보겠다.

- (8) ㄱ. 나는 화분에다가 물을 주었다.
 ㄴ. 이번 달에는 월급에다가 수당이 붙는다.

(8ㄱ)에서 ‘에다가’와 결합하는 명사구 ‘화분’은 ‘물’을 주게 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이다.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명사 ‘물’과 결합할 수 있는 조사는 서술어 ‘주다’에 따라 목적격조사로 실현되고 있다. 이때 목적격조사가 실현된 자리에 (8ㄱ)처럼 보조사 ‘도, 까지, 마저’로 실현되어도 문장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또한 (8ㄴ)에서 ‘에다가’와 결합하는 명사구 ‘월급’은 ‘수당’이 붙게 된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구이다. 이때 ‘에다가’ 뒤에 나타난 명사 ‘수당’에 주격조사 ‘이’가 실현되어 있지만 (8ㄴ)처럼 이 자리에 보조사 ‘도, 까지, 마저’도 나타날 수 있다.

- (8) ㄱ. 나는 화분에다가 물{도, 까지, 마저} 주었다.
 ㄴ. 이번 달에는 월급에다가 수당{도, 까지, 마저} 붙는다.

위에서 쓰인 것처럼 (8)과 (8)은 실현된 조사에 따라 의미 전달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문장의 성립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8) ㄱ. *나는 화분에다가 물에다가 주었다.
 ㄴ. *이번 달에는 월급에다가 수당에다가 붙는다.

하지만 부사격조사 ‘에다가’는 (8)처럼 문장의 모든 명사구에 붙어 중출할 수 없다. 이는 격 중출 문제와 관련된다. 유동석(1998:308)에서는 한국어의 격 가운데 격 중출이 문제 되는 것은 주격, 목적격, 속격 따위이고, 여격, 처격, 조격, 공동격의 어휘격 조사들은 후치사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들은 중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설사 중출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예: 한 시에 공항에 도착했다.) 의미역이 문제될 뿐 문법적 기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한 문장에서 같은 의미역을 맡게 된 부사격조사는 두 번 이상으로 실현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⁴⁾ 이는 또한 부사격 조사와 접속조사를 구별하는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에다가’는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선행어와 결합할 때 ‘에다가’는 타동사와만 결합한다는 제약을 받는다. 분포 양상에서는 ‘에다가’ 뒤에 나타난 명사구에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주격이나 목적격, 그리고 보조사가 결합될 수 있다.

2.2.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의미 기능

부사격조사 ‘에다가’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결합하여 ‘일정

4) 익명의 심사자께서 이에 대해 예문 ‘어릴 때는 산에 들에 밭에 나가서 뛰어놀았다’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이 예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문장으로 풀어낼 수 있다.

ㄱ. 어릴 때는 산에 나가서 뛰어놀았다.
 ㄴ. 어릴 때는 들에 나가서 뛰어놀았다.
 ㄷ. 어릴 때는 밭에 나가서 뛰어놀았다.

위와 같이 ‘ㄱ, ㄴ, ㄷ’의 ‘에’는 부사격조사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다시 ‘ㄱ, ㄴ, ㄷ’을 합치면 일반적으로 ‘어릴 때는 산과 들과 밭에 나가서 뛰어놀았다’이 된다. 즉 ‘어릴 때는 산에 들에 밭에 나가서 뛰어놀았다’에서 앞의 두 개의 ‘에’는 접속조사 ‘과’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는 산에 들에 밭에 나가서 뛰어놀았다’의 ‘에’는 접속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문장의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예문이 ‘어릴 때 산에, 들에, 밭에 나가서 뛰어놀았다’와 같이 바뀌면 더 자연스럽다고 본다.

한 위치⁵⁾를 나타낼 데에 가장 많이 쓰인다.

- (9) ㄱ.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ㄴ. 언니가 밭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9ㄱ)에서는 ‘에다가’가 ‘언덕 위’와 결합하여 집을 짓는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9ㄴ)에서는 ‘에다가’가 ‘밭’에 결합하여 나무를 심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의 ‘에다가’는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와 같은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에다가’의 ‘다가’는 본래 ‘접근’의 의미에서 유래되었지만 여기서는 타동사와 결합하여 주로 ‘다른 데 아니라 이곳에서 무엇을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즉 부사격조사 ‘에다가’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붙어 쓰일 때 ‘일정한 위치’를 나타낸다.

한편, 다음과 같은 장소 이외의 명사구에 결합하면 ‘에다가’는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 (10) ㄱ. 백 원에다가 백 원을 더 하니 이백 원이 되었다.
 ㄴ. 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었다. 『표준국어대사전』

(10ㄱ)에서는 ‘에다가’가 앞 명사구 ‘백 원’에 결합하여 뒤 명사구 ‘백 원’을 더 하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고, (10ㄴ)에서는 ‘에다가’가 ‘물’에 결합하여 밥을 말아 먹은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더해지는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구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에다가’의 이런 의미 기능을 ‘첨가’라 보기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쓰인 ‘에다가’는 ‘앞말이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의 부사어임’⁶⁾을 나타내는 격조사 ‘에’와 같은 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에다가’의 ‘다가’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붙어 쓰인 ‘에다가’에서의 ‘다가’와 같은 용법으로 ‘접근’에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

5)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뜻풀이 「1」이다.

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사격조사 ‘에’의 뜻풀이 「15」이다.

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결합하면 ‘일정한 위치’를 나타내고, 장소 아닌 명사구에 결합하면 ‘첨가’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에다가’의 ‘다가’는 주로 ‘접근’에서 ‘강조’의 의미를 담당하는 것으로 본다.

2.3. 부사격조사 ‘에다가’와 ‘에’의 관계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에다가’는 통시적으로 타동사 ‘닥다(다그다)’가 문법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공시적인 형태소 분석은 ‘에+다가’의 분석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⁷⁾ 본고는 이런 공시적인 관점에서 ‘에다가’와 ‘에다’, ‘에’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1) 상자는 여기{에다가, 에다, 에} 둘까? 『표준국어대사전』

(12) 그녀는 부모님 가슴{에다가, 에다, 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다.

(11)의 세 문장은 모두 ‘상자를 여기에(다가) 두는 것을 묻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12)의 세 문장은 모두 ‘부모님 가슴에(다가) 카네이션을 달아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같은 환경에서 쓰인 ‘에다가’와 ‘에다’, ‘에’는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에다가’와 ‘에다’의 관계를 살펴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에다’에 대한 설정은 ‘에다가’의 준말로 되어 있다. 또한 김진수(1987:60-61)에서도 음운 탈락 현상에 의해 ‘에다가’는 ‘에다’로도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1)에서 ‘에다가’와 ‘에다’의 두 문장 의미 사이에 아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2)의 문장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본고에서도 ‘에다’는 ‘에다가’의 준말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에다가’와 ‘에’의 관계를 살펴본다.

(13) ㄱ. 옷에 먼지가 묻다.

ㄴ.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한다.

ㄷ. 동생은 방금 집에 갔다.

ㄹ.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7) 김영희(1975), 성광수(1979), 김문웅(1982), 김진수(1987)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ㄹ. 나는 화분에다가 물을 주었다.

ㅁ. 국에 밥을 말아 먹다.

...

(13)의 문장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에’에 대한 설명 예문들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사 ‘에’에 대한 설명은 두 항으로 나뉘어서 모두 16가지 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13ㄱ)의 ‘에’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고, (13ㄴ)의 ‘에’는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고, (13ㄷ)의 ‘에’는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고, (13ㄹ)의 ‘에’는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고, (13ㅁ)의 ‘에’는 앞말이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의 부사어임을 나타낸다. ‘에’의 이런 많은 용법 중에서 ‘에다가’나 ‘에다’와 관련된 용법은 오직 (13ㄹ, ㅁ) 두 가지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 두 용법에서 드러나는 ‘에다가’와 ‘에’의 관계만 살펴보겠다.

위에서 제시된 예문을 보면 문장 사이에 큰 의미 차이 없지만 (13ㄹ)은 (13ㄷ)보다 구체적인 위치를 나타내 주는 강조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이는 ‘다가’의 ‘접근’ 의미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다가’의 이런 의미는 타동사 ‘닥다(다그다)’와 관련된다고 본다. 타동사 ‘닥다(다그다)’는 문법화 과정에서 ‘다가’의 통사·의미적 역할이 약해져 결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의적 요소로 변했다. 따라서 이때의 ‘에다가’는 (13ㄷ)과 (13ㄹ)처럼 ‘에다’와 ‘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서 ‘에다가’가 줄어서 쓰인 ‘에’는 본래 부사격조사 ‘에’와 같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선행어가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구이고 문장의 서술어가 타동사 아닌 경우에 쓰인 ‘에’는 ‘에다가’가 줄어서 쓰인 ‘에’와 다르다.

(14) ㄱ. 학교에 도착하였다.

ㄴ. *학교에다가 도착하였다.

(14ㄱ)의 서술어 ‘도착하다’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이므로 문장에 쓰인 ‘에’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인데도 불구하고 (14

ㄴ)처럼 ‘에다가’로 바뀌 쓰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쓰인 ‘에’는 ‘에다가’의 준말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용법에 대해 이희자·이종희(1998:193)에서도 타동구문이 아닌 ‘장소’의 ‘에’항이나 ‘이유’의 ‘에’항에는 ‘다가’ 결합꼴이 쓰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외에 선행어가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구가 아닐 경우에 쓰인 ‘에다가’는 ‘에’와 서로 대체될 수 있다.

(15) ㄱ. 3에다가 4를 더하다.

ㄴ. 3에 4를 더하다.

위와 같이 (15)의 두 문장은 큰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이때의 ‘에’는 ‘에다가’가 줄어든 ‘에’와 본래 조사 ‘에’와 같은 형태이다.

요컨대 부사격조사 ‘에다가’는 타동사구문에서 ‘일정한 위치’를 나타낼 때, 즉 선행어가 장소나 위치인 명사구일 때 부사격조사 ‘에’와 같은 용법을 가지므로 서로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에다’는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준말로 파악된다.

3. 접속조사 ‘에다가’의 용법

3.1. 접속조사 ‘에다가’의 통사적 특성

그 동안 국어문법연구의 업적 중 보편성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간 접속조사에 대한 설정을 정리하기로 한다.

| 논저 | 개념 설명 |
|---------------------------|--|
| 남기심·고영근 (1985/2011:99) | 격조사와 비슷한 조사로 둘 이상의 체언을 병렬시키는 기능을 하는 조사 |
| 임홍빈·장소원 (1995:157-158) |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 |
| 김석득(1992:369-379) | 월성분이 되어 자리를 이루도록 오로지 이어줌 |

| | |
|-------------------|--|
| 김승곤(1996:344-348) | 둘 이상의 말 도막을 이어서 그 전체가 바로 풀이말에 이끌릴 수 있는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토씨 |
| 김진수(1987) | 어떤 자리를 나타내든지 특별한 뜻을 더하여 주지 않는 조사 |

위에서 제시한 대로 접속조사에 대해 ‘둘 이상의 체언을 병렬시키거나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로 설명하기도 하고, 서술어와의 관계나 문장성분과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접속조사라는 문법 범주에 대한 통일된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들은 접속조사가 명사구를 접속시켜만 준다는 기능에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런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접속조사라는 개념을 ‘두 개 이상의 명사구를 접속시키는 조사’로 보기로 한다.

(16) 나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좋아한다.

(16)′ ㄱ. 나는 중국어를 좋아한다.

ㄴ. 나는 한국어를 좋아한다.

(16)에서 명사구들을 공동으로 접속시키는 ‘와’는 동일한 서술어 ‘좋아하다’를 가진 명사구 ‘중국어’와 ‘한국어’를 접속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의 (16)은 (16′, ㄴ)처럼 두 개의 문장으로 성립이 가능하다. 즉 접속조사로 접속시키는 명사나 명사구의 한 쪽을 떼어 내고도 문장이 온전한 문장이 된다는 것이다.⁸⁾ 이는 또한 접속조사로 접속된 접속문의 특성이기도 하다. 즉 접속조사가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접속조사로 접속된 명사구는 하나의 전체로서 같은 서술어를 가진다.

다음으로 접속조사 ‘에다가’의 통합 양상을 살펴보겠다. 김진수(1987:62)에서 ‘에다가’는 언제나 <에(다가), 에(다가)>의 형식을 유지할 뿐 <에(다가), Ø>⁹⁾의 형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8) 이익섭·채완(1999/2010:190-191)

9) 김진수(1987:62)에서 <에(다가), 에(다가)>는 최종의 피접속 명사구 뒤에 앞의 명사접속 조사와 같은 접속조사가 온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Ø’는 김진수(1987)에서 언급한 NIL과 같은 의미로 즉 접속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용어 NIL은

대해 예문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한다.

- (17) ㄱ. 셋은 동갑에다가 초등학교 동기동창이다. (김영희 1975:88)
 ㄴ. 그는 장님에다가 앓은뱅이었다.¹⁰⁾

(17)의 두 문장의 서술어는 모두 ‘-이다’¹¹⁾로 실현된다. (17ㄱ)은 ‘세 사람은 동갑이기도 하고 초등학교 동기동창이기도 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17ㄴ)은 ‘그는 장님이기도 하고 앓은뱅이기도 하였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쓰인 ‘에다가’는 먼저 두 명사구를 접속시킨 후에 그 다음으로 접속된 명사구 전체가 다시 서술어 ‘-이다’와 통합한다. 이때 ‘에다가’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앞의 접속항에만 결합하고, 마지막 접속항에 결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체언이나 용언의 명사형 뒤에 붙어서, 그 말로 하여금 서술어가 되게 하는 ‘-이다’가 갖고 있는 특성에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김진수(1987)에서 쓰인 통합 형식을 적용시키면 <에다가, Ø>로 된다. 즉 서술어가 ‘-이다’로 실현된 문장에서는 ‘에다가’가 접속된 최종 명사구 뒤에 다른 성분 없이 바로 ‘-이다’와 결합한다. 따라서 김진수(1987)에서 논의한 ‘에다가’가 언제나 <에다가, 에다가>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본고에서 ‘Ø’로 사용하기로 한다.

- 10) 《표준국어대사전》에서 (17ㄴ)을 ‘에다가’의 부사격조사로서의 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 (16)과 (16)’에서 논의하였듯이 접속조사로 접속된 두 명사구는 같은 서술어를 가지므로 한 쪽을 떼어내고도 문장이 여전히 성립한다. 하지만 부사격조사는 서술어와 직접 관계를 가지지 않으므로 (16)’처럼 쓰일 수 없다. (17ㄴ)을 (16)’처럼 두 문장으로 풀어내면 다음과 같다.
 (17)’ ㄱ. 그는 장님이었다.
 ㄴ. 그는 앓은뱅이었다.
 위와 같이 (17)’의 두 문장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문장들이다. 따라서 (17ㄴ)의 ‘에다가’는 접속조사로 볼 수 있다.
- 11)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보게 된다면 <에다가, -이다>의 구성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분류하고 있지만 격을 ‘명사구가 서술어와 맺는 관계’라고 정의했을 때 격 자체가 서술어가 된다는 중대한 모순이 생길뿐더러, (17ㄴ)처럼 조사에 선어말 어미 ‘-었-’이 붙는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 ‘이다’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서술어로 간주하기로 한다.

(18) 영화는 춥다고 조끼에다가 코트까지 입고 나갔어. (이규호 2006:187)

(18)은 ‘영화가 추워서 조끼도 코트도 입고 나갔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때 두 접속항이 모두 선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18)은 다음 (18)′과 같이 바뀔 수 있다.

(18)′ 영화는 춥다고 조끼와 코트를 입고 나갔어.

(18)과 (18)′을 비교해 보면 ‘와’로 실현된 (18)′의 두 명사구 ‘조끼’와 ‘코트’가 하나의 쌍을 이루어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에다가’로 실현된 (18)의 두 명사구 ‘조끼’와 ‘코트’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김진수(1987:64)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를 언급하고 있다. 즉 접속조사 ‘와’는 피접속명사구들을 공동으로 접속시키는 반면에 ‘에다가’는 한 명사구에 다른 명사구들을 다시 접속시키는 것이다.

한편, 예문 (18)은 다음과 같이 ‘에다가’가 중출할 수 있기도 하고, 격조사와 직접 결합하여 쓰일 수 있기도 한다.

(18)″ ㄱ. 영화는 춥다고 조끼에다가 코트에다가 입고 나갔어.

ㄴ. 영화는 춥다고 조끼에다가 코트를 입고 나갔어.

ㄷ. ?영화는 춥다고 조끼에다가 코트에다가까지 입고 나갔어.

ㄹ. ?영화는 춥다고 조끼에다가 코트에다가를 입고 나갔어.

(18)″)에서는 앞 뒤 두 명사구에 ‘에다가’가 모두 결합하여 쓰인다. 즉 문장의 마지막 접속항 ‘코트’에 ‘에다가’도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실현된 (18)″)의 성립은 아무 문제 없다. (18)″)에서는 앞 접속항 ‘조끼’에 접속조사 ‘에다가’가 연결되어 있고 뒤 접속항 ‘코트’에 목적격조사 ‘를’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접속조사와 격조사가 결합하여 만드는 (18)″)의 성립도 통사·의미적으로 모두 가능해 보인다. 한편 (18)″, ㄷ)에서는 마지막 접속항 ‘코트’에 각 접속조사 ‘에다가’와 보조사 ‘까지’, 목적격조사 ‘를’의 복합형식인 ‘에다가까지’, ‘에다가를’이 연결되어 있다. 이 두 문장은 얼핏 보기

에 약간 어색하지만 반복해서 자세히 읽어 보면 둘 다 성립할 수 있어 보인다¹²⁾. 즉, 의미 전달에서 (18)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8)의 네 문장은 모두 가능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접속조사 ‘에다가’의 통합 양상은 <에다가, 에다가>, <에다가, 격조사>, <에다가, 보조사>, <에다가, 에다가+격조사>, <에다가, 에다가+보조사>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에다가’의 가장 대표적인 통합 양상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드러난다.

- (19) ㄱ. 사과에다가 배에다가 잔뜩 먹었다.
 ㄴ. 사과에다가 배에다가 수박에다가 잔뜩 먹었다.

‘에다가’는 (19ㄱ)에서 명사 ‘사과’와 ‘배’를 접속시키고 있고, (19ㄴ)에서 ‘사과’와 ‘배’와 ‘수박’을 접속시키고 있다. 이때 ‘에다가’는 문장의 모든 명사구 뒤에 결합하여 <에다가, 에다가>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접속조사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서술어가 ‘-이다’인 경우에는 접속조사 ‘에다가’의 통합 양상이 주로 <에다가, Ø>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서술어가 ‘-이다’가 아닌 경우에는 접속조사 ‘에다가’의 통합 양상이 <에다가, 에다가>, <에다가, 격조사>, <에다가, 보조사>, <에다가, 에다가+격조사>, <에다가, 에다가+보조사>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3.2. 접속조사 ‘에다가’의 의미 기능

접속조사 ‘에다가’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주로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접속조사 ‘에다가’가 ‘단순 연결’의 기능을 할 뿐이고, 문장에서 ‘첨가’나 ‘부가’의 의미는 다만 접속항의 위계성과만 관련이 된다는 관점이다(이정화 1998). 다른 하나는 접속조사 ‘에다가’가 연결된 접속항들 사이에 ‘첨가’나 ‘부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

12) 한국어에 대한 직관의 차이에 따라 이 두 문장은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국어전공자인 한국인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는 이 두 예문이 부자연스럽지만 그래도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다는 관점이다(김진수 1987). 여기서 두 가지 견해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 (20) ㄱ. 떡에다가 술에다가 고기에다가 실컷 먹었다.
 ㄴ. 새 학기에는 가방에다가 필통에다가 신발주머니에다가 준비할 것이 많았다.
 (21) 김 의원은 명예에다가 권력에다가 부러울 것이 없었다.

이정화(1998)에서는 접속조사 ‘에다가’를 논의할 때 (20)과 같이 주로 ‘체언 아래 반복적으로 나타나 접속된 명사구를 동일 층위에 놓이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21)과 같이 ‘단순 나열’과 달리 다른 ‘첨가’의 의미가 강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결국 접속조사에는 첨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접속되는 명사구의 위계에 차이가 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접속된 명사구들이 동일한 층위에 처해 있다면 즉 접속조사 ‘에다가’가 ‘단순 나열’을 나타낸다면 접속된 명사구들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도 문장이 그대로 성립해야 한다. ‘에다가’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20)의 명사구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바꿔 보았다.

- (20)′ ㄱ. 떡에다가 고기에다가 술에다가 실컷 먹었다.
 ㄴ. 떡에다가 술에다가 고기에다가 실컷 먹었다.
 ㄷ. 술에다가 떡에다가 고기에다가 실컷 먹었다.
 ㄹ. 술에다가 고기에다가 떡에다가 실컷 먹었다.
 ㅁ. 고기에다가 술에다가 떡에다가 실컷 먹었다.
 ㅂ. 고기에다가 떡에다가 술에다가 실컷 먹었다.

(20)′처럼 접속조사 ‘에다가’가 접속된 명사구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도 문장이 성립한다. 그리고 (20)의 6개 문장의 의미 차이도 (20)과 크게 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에서 접속조사 ‘에다가’는 명사구를 대등접속하고 있다. 이규호(2006)에 따르면 이때의 ‘에다가’의 대등 접속은 구체적으로 ‘나열관계’를 나타낸다.¹³⁾ 다시 말

13) 권재일(1994:27-39)은 통사론에서 접속문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접속’과 ‘대

하면 (20)의 ‘에다가’는 접속된 명사구를 같은 층위에 놓이게 하는 ‘대등 나열’의 의미 기능을 하고 있다. (20ㄴ)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론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문장에서 명사구의 수가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부사격조사 ‘에다가’와의 차이점이다.

다음으로 접속조사 ‘에다가’가 ‘첨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22) ㄱ. 그는 2년간의 투옥 생활로 심한 우울증에다가 폐병까지 앓아야 했다. (이희자·이종희 1998:190)

ㄴ. 그는 노름판에서 재산에다가 자식까지 잃었다.

접속조사 ‘에다가’는 (22ㄱ)에서 두 명사구 ‘우울증’과 ‘폐병’을 접속시켜 ‘우울증뿐만 아니라 폐병도 앓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22ㄴ)에서 두 명사구 ‘재산’과 ‘자식’을 접속시켜 ‘재산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잃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예문에서 ‘에다가’로 접속된 두 명사구의 순서를 바꾸면 다음 (22)′과 같다.

(22)′ ㄱ. 그는 2년간의 투옥 생활로 폐병에다가 심한 우울증까지 앓아야 했다.

ㄴ. 그는 노름판에서 자기 자식에다가 전 재산까지 잃었다.

(22)′처럼 ‘폐병’이 ‘우울증’ 앞에 넣고, ‘자식’이 ‘재산’ 앞에 놓여도 문장이 여전히 성립될 수 있다. 즉 이때 ‘에다가’로 접속된 ‘폐병’과 ‘우울증’은 배열순서와 상관없이 같은 층위에 있다. 이를 더 자세히 보면 (22ㄱ′)에서 그는 2년간의 투옥 생활로 앓아야 했던 것은 ‘폐병’에 ‘심한 우울증’을 더한 것이고, (22ㄴ′)에서 그는 노름판에서 잃었던 것은 ‘자기 자식’에 ‘전 재산’을 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22)의 ‘에다가’의 의미 기능은 그냥 ‘대등 나열’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첨가’로 설명하는 것은 더 타당하다. 이때 첨가 기

등’의 개념을 단어 접속이나 명사복합어 내부에서 명사간 결합 방식에도 확대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규호(2006)에서 이와 같은 관점을 받아들여 대등접속조사를 ‘나열관계’, ‘선택관계’, ‘대조관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준은 항상 앞에서 실현된 명사구에 있다. 예를 들자면 (22ㄱ')에서 두 접속항 중 앞에서 실현된 '폐병'을 기준으로 '심한 우울증'을 첨가한 것이고, (22ㄴ')에서 앞에서 실현된 '자기 자식'을 기준으로 '전 재산'을 첨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서 논의하였던 (20)도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은 '에다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술어가 '-이다'로 실현된 문장이다.

(23) ㄱ. 그는 장님에다가 앓은뱅이였다.

ㄴ. 셋은 동갑에다가 초등학교 동기동창이다. (김영희 1975:88)

(23ㄱ)의 '장님'과 '앓은뱅이'와 문장의 주어인 '그는'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23ㄴ)의 '동갑'과 '동기동창'도 '셋'과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23)에서 명사구들의 순서가 다음 (23')과 같이 바뀔 수 있다.

(23') ㄱ. 그는 앓은뱅이에다가 장님이였다.

ㄴ. 셋은 초등학교 동기동창에다가 동갑이다.

위 예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접속조사 '에다가'로 접속된 명사구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도 문장이 그대로 성립한다. 이는 (23)의 '에다가'도 대등접속의 '나열관계'에 속한다. 그리고 (23ㄱ')에서 '앓은뱅이'에 '장님'을 첨가한 것이고, (23ㄴ')에서 셋의 관계는 '초등학교 동기동창'에 '동갑'을 첨가한 것이다. 이때의 첨가 기준은 문장에서 앞에 나타난 명사구 '앓은뱅이'와 '초등학교 동기동창'에 있다.

'에다가'의 이런 '첨가'의 의미 기능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4) ㄱ. 그가 아는 중국어는 단어 몇 개에다가 간단한 인사말 정도이다.

ㄴ. 그는 재산이 아파트 2채에다가 적금 5억 정도이다.

(24ㄱ)에서의 명사구 '단어 몇 개', '간단한 인사말', 그리고 (24ㄴ)에서의 명사구 '아파트 2채', '적금 돈 5억'은 각 문장에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24ㄱ)에서는 그는 중국어 실력은 ‘단어 몇 개’에 ‘간단한 인사말’이 첨가되어 합쳐진 것이고, (24ㄴ)에서는 그는 재산이 ‘아파트 2채’에 ‘적금 5억’이 첨가되어 합쳐진 것이다. 즉 이때의 ‘에다가’의 의미 기능은 앞에서 논의한 대로 나열관계를 나타내는 대등접속을 바탕으로 설명된 ‘첨가’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접속조사 ‘에다가’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다. ‘에다가’는 기본적으로 대등접속의 하위분류인 ‘나열’에 속한다. 이를 바탕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본 바로 ‘에다가’는 문장에서 앞에 나타난 명사구를 기준으로 뒤에 오는 명사구를 ‘첨가’하는 뜻을 나타낸다.

3.3. 접속조사 ‘에다가’와 ‘에’의 관계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본고에서 ‘에다가’의 형태소 분석은 ‘에’와 ‘다가’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화(1998)에서는 ‘에다가’와 ‘에’는 별개의 형태로 보고 있으며, 두 형태가 모두 부사격조사에서 문법 범주의 변이를 겪어 접속조사로 문법화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에다가’와 ‘에’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한다.¹⁴⁾

(25) ㄱ. 떡에다가 술에다가 고기에다가 실컷 먹었다.

ㄴ. 떡에 술에 고기에 실컷 먹었다. (이정화 1998:24)

위와 같이 ‘에다가’와 ‘에’가 같은 환경에 쓰인 문장 (25ㄱ)과 (25ㄴ)은 큰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에다가’가 쓰인 (25ㄱ)에서는 명사구에 대한 ‘강조’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또한 ‘다가’의 역할이 약해짐에 따라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에 지장이 되지 않으므로 ‘에다가’는 ‘에’로 실현되기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에’에 대해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조사’라 설명하기도 한다. 즉 ‘에’는 본래 명사구를 접속시켜 주는 접속조사의 용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에다가’에서 ‘다가’가 생략되어 쓰인

14) ‘에다가’와 ‘에다’의 사이는 앞에서 ‘에다가’의 형태소 분석할 때 논의한 것처럼 원형과 준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에’의 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주로 그 중에서 ‘에다가’와 ‘에다’와 관련된 사항을 선택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에’는 본래 접속조사 ‘에’와 같은 형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6) ㄱ. 그녀는 오늘 남색 스커트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깔끔한 모습이다.

ㄴ. 그 남자는 학벌 좋고 직장 좋으며 잘 생긴 외모에 집안도 빠지지 않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희자 · 이종희 1998:173)

(26)의 ‘에’는 ‘남색 스커트’와 ‘흰색 블라우스’, ‘잘 생긴 외모’와 ‘빠지지 않는 집안’을 접속시키고 있다. 이때의 ‘에’는 ‘에다가’로 바뀌어 쓰여도 문장의 성립이 가능하다. 즉 이런 환경에 쓰인 ‘에다가’와 ‘에’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문에 쓰인 ‘에’는 ‘에다가’로 바뀔 수 없다.

(27) ㄱ. 이렇게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면서 이곳까지 쫓겨 왔다.

ㄴ. 지금 우리 문학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희자 · 이종희 1998:173)

이희자 · 이종희(1998:173)에서 (27)의 ‘에’는 동일한 명사를 접속시켜 반복함으로서 강조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때의 ‘에’를 ‘에다가’로 바꿔 쓰면 다음 (27)과 같이 문장이 어색해진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 쓰인 ‘에’는 관용형식으로 굳어져 ‘에다가’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한다.

(27) ㄱ. *이렇게 후퇴에다가 후퇴를 거듭하면서 이곳까지 쫓겨 왔다.

ㄴ. *지금 우리 문학은 발전에다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상에서 접속조사 ‘에다가’와 ‘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에다가’에서의 ‘다가’가 생략되어 ‘에’로 나타난 형태는 본래 접속조사 ‘에’와 같은 형태인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앞뒤 같은 명사를 접속시키는 용법은 ‘에’의 관용형식으로 보고 이런 용법을 나타낼 때 ‘에’와 ‘에다가’는 서로 바뀔 수 없다.

4. 나오기

본고는 주로 조사 ‘에다가’의 부사격조사로서의 용법과 접속조사로서의 용법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부사격조사와 서술어의 관계를 출발하여 부사격조사 ‘에다가’와 서술어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선행명사구가 일정한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면 문장의 서술어가 반드시 타동사이어야 한다. ‘에다가’의 형태소 분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사 ‘에’와 ‘다가’의 결합으로 보기로 한다. 따라서 타동사구문에서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준말인 ‘에’와 본래 부사격조사 ‘에’는 같은 형태로 본다.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의미 기능은 주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결합하여 ‘일정한 위치’와 장소 이외의 명사구에 결합하여 ‘첨가’를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접속조사의 특성에서 출발하여 접속조사 ‘에다가’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다. 접속조사 ‘에다가’의 통사적 특성은 주로 문장 성분과의 통합 양상에서 드러난다. 서술어가 ‘-이다’일 때는 주로 <에다가, Ø>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서술어가 ‘-이다’가 아닐 때는 주로 <에다가, 에다가>, <에다가, 격조사>, <에다가, 보조사>, <에다가, 에다가+격조사>, <에다가, 에다가+보조사>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접속조사 ‘에다가’의 준말인 ‘에’는 본래 ‘둘 이상의 사물을 이어주는’ 접속조사 ‘에’와 같은 형태로 본다. 이와 관련된 의미 기능은 주로 같은 층위에 있는 명사구를 대등으로 접속시켜 주는 기능을 바탕으로 ‘첨가’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부사격조사, 접속조사, 통사적 특성, 의미 기능, 형태소 분석

참고문헌

- 康琪鎮(1986), 「國語 助詞 ‘에’의 意味機能」, 『國語國文學論文集』 13, 동국대학교, 23-41쪽.

- 권재일(1994), 『한국어 문법의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김문웅(1982), 「‘다가’류의 문법적 범주」, 『한글』 176, 한글학회, 149-178쪽.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탑출판사.
- 김승곤(1996), 『현대나라말본』, 박이정출판사.
- 김영희(1975), 「‘닥-아서’에서 ‘다가’까지」, 『연세어문학』 6, 연세대학교, 83-108쪽.
- 김진수(1987), 『국어 접속조사와 어미 연구』, 탑출판사.
- 남기심 · 고영근(1985/2011),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朴志容(2005), 「현대국어 조사 간의 결합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낙천(1996), 「‘(-)다가’에 대하여」, 『동국어문학』 8, 동국대학교, 213-230쪽.
- 성광수(1979), 『국어 조사의 연구』, 형설출판사.
- 유동석(1995), 『국어매개변인문법』, 신구문화사.
- _____(1998), 「국어의 격 중출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31, 국어학회, 307-337쪽.
- 이광호(1988), 『국어격조사 ‘-을/를’의 연구』, 탑출판사.
- 이규호(2006), 「접속조사의 분류와 목록」,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171-195쪽.
- _____(2007), 『한국어 복합조사』, 한국학술정보.
- 이기동(1981), 「조사 예와 에서의 기본 의미」, 『한글』 173, 한글학회, 9-34쪽.
- 이남순(1996), 「‘다가’攷」, 『이기문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신구문화사, 455-477쪽.
- 이원근(1996), 「우리말 도움토씨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익섭 · 채완(1999/2010), 『국어문법론강의』, 學研社.
- 이정화(1998), 「현대국어의 접속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 이희승(1949), 『초급국어문법』, 박문출판사.
- _____(1985), 『역대한국어문법대계』, 탑출판사.
- 이희자 · 이종희(1998), 『텍스트 분석적 국어 조사의 연구』, 한국문화사.
- 임흥빈(1987), 『국어재귀사연구』, 신구문화사.

임흥빈·장소원(1995), 『국어 문법론 I』,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최현배(1937/1983),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한용운(2003), 『언어 단위 변화와 조사화』, 한국문화사.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박이정.

허웅(1967), 『표준문법』, 신구문화사.

_____(1983), 『국어학-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_____(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이 논문은 2013년 4월 26일 투고 완료되어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3년 6월 11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유경화

소속 :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소 :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 다산관 206호

전화번호 : 031-219-2890

전자우편 : lqh02@hanmail.net

A Study on the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Particle ‘edaga’

Liu, Qing-hua

[Abstract]

Particle ‘edaga’ can be used as an adverbial case maker and as a conjunctive particle. This study searched these two categories’ usages of ‘edaga’. Furthermore in some positions ‘edaga’, ‘eda’, ‘e’ are all can be fit in. Therefore this study also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hree words.

The syntactic properties of an adverbial case maker ‘edaga’ were searched in accordance with the essential relationship between ‘edaga’ and the predicate. As for semantic functions of adverbial case maker ‘edaga’, they are ‘fixed position’ and ‘addition’. On the other hand, the syntactic properties of a conjunctive particle ‘edaga’ were searched in accordance with combination of ‘edaga’ with sentence constituents. As for semantic functions of conjunctive particle ‘edaga’, it is ‘addition’.

Keywords : adverbial case maker, conjunctive particle, syntactic property, semantic function, morphological analysis